금산사, 교구 소임자 선출제도 모색

전북불교 사부대중 2차 원탁회의서 7개 모둠 나눠 본사 주지 선출 등 토론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와 태공문도회가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2차원탁회의를 개최했다.

7월 23일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불교 백년대계 사부대중 원탁회의 2차 회의는 '소임자 선출 · 탁마 ·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라는 주제로 교구 소임자선출제도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전북불교백년대계 기획단장 평상 스님의 1차 원탁회의 결과 및 후속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평상 스님은 향후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계승을 위한 (가칭)생명평화포럼 추진, 연등축제를 지역대표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팀 운영, 수현사를 전북불교 혁신거점 도심형 사부대중 공동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산사는 그동안 주요 소임의 경우 선출과정 없이 정해왔다. 조실 월주 스님의 추천으로 교구장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등 교구의 주요 소임자가 정해지면서 산중총회에서 추인하는 형식을 유지해 왔다.

전북불교백년대계 정책기획단 산성스님은 소임자 선출제도에 대한 제안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면서도 불교공동체가 2700여 년 동안 유지해온 공화와 평등, 공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낼지를 고민해야 한다"


금산사와 태공문도회는 7월 23일 수현사에서 2차 원탁회의를 열고 주요소임자 선출방안을 모색했다.

며 "불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시대를 앞서가는 소임자 선출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소임자의 선출과정은 대결의 장이 아닌 탁마의 장, 화합의 장,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월주 스님 입적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가 경쟁과 다툼의 장이 아니라 문중 · 교구 화합의 장이 돼 전북불교의 미래를 향도할 인재를 뽑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종단적으로 모델이 되고, 세상에도 귀감이 될 선출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

정책기획단은 소임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아닌 선출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혼탁하고 폐단이 많은 선거라는 기존 제도뿐 아니라, 추첨,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제시했다.

7개 모둠으로 나뉘어 진행된 주제토론에서 총무원장 선거인단,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선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민감한 주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한 번의 토론으로는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승단 중심 의견과 함께 문중 · 지연 · 파벌 선거풍토 개선 등의 내용이 오갔다. 토론 결과 선거 승복 등에 의견이 모아졌다. 전체회의에서는 금산사 전통을 계승해 어른스님들이 추천하는 의견과 젊은 스님들에 대한 기회 제공 등이 제시됐다.

원탁회의 의장 도법 스님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기획단과 관심 있는 대중이 함께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제대로된 선출제도를 17교구가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기획단장 평상 스님은 "소임자 선출제도를 결정하기 위해 태공문도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시 교구종회에서 논의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교구 종도들에게 공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의 원탁회의는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사부대중 원탁회의 의장 도법 스님, 정책기획단장 평상 스님, 서고사 주지 화평 스님을 비롯한 20여 스님들과 30여 재가불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3차 원탁회의는 9월 17일 수현사에서 '전북불교 20년 후-전북불교의 혁신과 발전 방향' 을 주제로 열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자 포교 위한 새 콘텐츠 개발에 총력"

제32대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에 능해 스님

인천불교총연합회 제32대 회장에 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이자 인천 백운사 · 용궁사 주지 능해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인천불교총연합회는 7월 19일 미추홀구 숭의가든에서 '제32대 인천불교총연합회장 선거' 를 열고 단독 출마한 능해 스님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능해 스님은 1975년 출가해 박서봉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수지하고, 안덕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능해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하고, 태고종 중앙승가강원을 졸업한 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스님은 인천 영종도에 있는 용궁사 주지이자, 한국불교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과 인천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능해 스님은 취임과 함께 인천지역 불자 배가 운동과 지역 내 각 사암의 민원해결을 위한 창구 개설, 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능해 스님은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화합하고 합신하는 불교 신행의 장을 펼치고, 다문화가족 불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능해 스님은 "여러 대덕 큰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인천 불교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자 포교를 위해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시대에 맞는 전법으로 선구자적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불교총연합회는 7월 27일 '국태민안 인천발전기원 대법회' 를 열고 인천불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을 것임을 밝혔다.

이날 능해 스님은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천을 신바람나고 살기좋은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염원드린다"며 "그러기 위해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천발전을 위해 합심하고 이른바 '인천당' 으로 똘똘 뭉쳐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화엄사, 불교복식 연구에 나서다

7월 27일 화엄불교복식연구소 창립


7월 27일 화엄사 박물관에서 열린 화엄불교복식연구소 창립식 모습.

화엄사가 한국의 불교 복식연구를 위한 첫걸음에 나섰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7월 27일 화엄사박물관에서 창립특별전인 '華嚴四色(화엄사색)' 을 열고 본격적인 불교 복식 연구를 위한 '화엄불교복식연구소' 를 창립했다.

화엄불교복식연구소(소장 강선정)는 스님들의 법의(法衣)인 가사(袈裟)의 전통 복원과 현대적 발전을 연구하고, 승려복식과 신도복식 등 종교활동의 현장에 필요한 복식의제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진행해 나아간다. 또한 번과 복장낭 등 불교공예와 전통침선과 전통자수, 전통매듭에 대한 최고 장인들의 기술들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덕문 스님은 특별전에 앞서 "화엄불교복식연구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은 어렵게 모신 구성원이고, 개개인으로 보면 대단히 유명한 한국 최고의 장인이다. 이런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화엄사는 서산대사의 가사와 벽암 스님의 가사를 보관하고 있고, 수많은 큰스님과 수행자들의 천년도량이다. 앞으로 미래의 불교 복식을 포함해 같이 연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출범한 화엄불교복식연구소는 강선정 소장(화엄사성보박물관 부관장)을 비롯해 한복 명장 611호인 박춘화, 무형문화재 80호 윤정숙, 서울시무형문화재 제13호 안영순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교계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복식과 공예 분야의 전문가인 김봉숙, 서정아. 심지윤, 이경희, 이미현, 정미자. 김유미, 허윤 등이 연구원으로 활동한다.

출범을 기념해 진행한 창립특별전 '華嚴四色' 도 눈길을 끈다.

특히 벽암 스님 가사 재현과 송광사 기산 스님 장삼 재현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불교 복식과 불교공예품, 그리고 생활의복 등의 60여 작품이 10월 10일까지 화엄사박물관에서 일반인들에게 선보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밀양 삼봉사 '가족 위한 봉안당' 화제

숙박 및 개별공간 배정 힐링공간으로 활용가능

밀양 삼봉사 봉안당이 화제다. 밀양 삼랑진 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삼봉사(주지 녹원) 봉안당은 2020년 10월 개원한 곳이다.

삼봉사 경내 스님 처소를 현대시설로 개조한 곳으로 유골함 900여 기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다. 삼봉사 봉안당은 고인 가족 모두를 배려한 고품격 추모관(반야궁, 적멸궁, 열반궁, 해탈궁)으로 개방형유리로 차단돼 시원한 전경과 채광 등을 자랑한다. 방충 관리를 비롯해 365일 고인의 영혼을 밝혀주는 개별 LED가 설치되어 있다.

또 추모객들을 위한 고즈넉한 추모공간으로 숙박이 가능한 차별성이 있다.


밀양 삼봉사 봉안당 전경. 개방형 유리로 구성돼 있다.

삼봉사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 밀양에 위치해 부산과 대구 등 4대 광역시 중심으로 1시간 거리에 불과하다. 삼랑진IC에서 10분 거리로 편하게 찾을 수 있다.

봉안당 혜택으로 설과 추석 등 명절의 무료 합동추모재, 영구안치, 진공유골함, 크리스탈 안치단 무료위패, 무료 반혼제 등이 있다.

삼봉사에는 보통 추석 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몰린다. 조상묘 벌초 및 관리 등의 부담을 덜고, 생전 좋아하는 물품을 공양하여 제를 올릴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삼봉사 주지 녹원 스님은 "삼봉사 불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봉안당에 근무한다. 언제나 숙박 등이 가능하기에 추모공간을 넘어 가족이 함께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며 "삼봉사에서 가족 간의 소통시간을 갖고 마음도 돌볼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부산 강서구에 사는 이재윤 거사는 6세 자녀와 함께 삼봉사를 찾았다. 이 거사는 "삼봉사에 가면 3가지 복을 받는다고 해 처음 왔는데, 이후 사찰 분위기도 좋고 환경도 깨끗해 계속 다니게 됐다"며 "봉안당 때문에 부부만 왔는데, 여름을 맞아 이번에는 아이도 함께 오게 됐다. 좋은 시간과 마음의 충만함을 간직하고 간다"고 전했다. 1577-3444

성낙두 경남지사장

서울 청수사 백중 천도재 눈길

8월 12일 7재 회향기도 진행


서울 청수사 주지 계휴 스님이 백중기도를 올리고 있다.

서울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청수사(주지 계휴)가 8월 12일 백중 7재 회향기도를 진행한다.

청수사는 예전 청수장으로 유명한 북한산 자락 국립공원에 위치한 소담한 사찰로 북한산 자락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과 함께 청량한 기운이 흐르는 곳이기에 이름 붙여졌다.

6월 25일 입재한 청수사 백중 7재는 선망부모와 조상천도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순국선열도 함께 천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문동 72현을 비롯해 다양한 순국선열들이 함께 모셔진다. 축원문을 읽을 때는 여느 사찰과 달리 자손들에게 술과 과일 등 공양물을 영전에 올릴 기회를 준다. 음식 및 꽃공양을 매번 다르게 올리고 공양물도 정성을 기울여 다양하게 준비해 신도들에게 호응이 높다.

주지 계휴 스님은 "여러 어려움을 딛고 기도 정진을 통해 행복을 찾게 된다면 복은 저절로 온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02)916-226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갑룡장학회, 지역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어르신한글교실 · 검정고시반 후원

지역 인재육성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는 7월 23일 진안문화집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23명의 지역 청소년들에게 총 10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신비의 돌탑으로 유명한 마이산 탑사의 돌탑을 축조한 이갑룡 거사의 이름 딴 갑룡장학회는 올해로 23년째 진안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최근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서 봉사하는 이들의 가족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과 최주연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장은 10년간 매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갑룡장학회는 7월 23일 진안 문화집에서 지역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봉사자 가족에게 봉사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진안이 전국에서 봉사와 나눔이 활발히 열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큰 마음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봉사자 여러분이 있기에 진안은 더욱 행복한 살기 좋고 환경 좋은 진안군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장학기금을 마련해주신 진성 스님과 갑룡장학회에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조준혁(진안제일고 2)학생은 "지난 겨울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장학금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진성 스님은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안사랑 지역상품권을 전달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전라북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장, 손동규 의원, 이루라 의원, 김명갑 의원, 동창옥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